불교복지관서 알찬 방학을

시설명	프로그램	문의
서울목동청소년회관	농구, 수영, 헬스, 호신술, 유도, 태권도, 스키캠프	(02) 646-6819
서울삼전복지관	자기표현교실, 독서탐험, 풀잎교실	(02) 421-6077
서울 양청구민체육센터	농구, 재능교실, 재즈, 리듬체조, 탁구, 수영, 호신술, 스키	(02) 652-1792
서울 청담복지관	컴퓨터, 미술, 구연동화, 피아노, 논술, 영어, 서예, 속셈	(02) 806-1377
서울 구로복지관	이색박물관 기행, 아트풍선, 만화, 음악여행(피아노 등), 학습지도, 모형항공기 만들기, 요리교실, 폐품활용만들기	(02) 852-0525
서울길음복지관	영화감상, 영어회화	(02) 965-0161
서울 본동복지관	만화, 신문활용(제작)교육, 바둑, 단소, 동화구연, 박물관기행, 지하철기행, 카드만들기	(02) 817-8062
서울신도림복지관	학습지도, 아동공부방	(02) 631-9792
서울 옥수복지관	전래놀이, 눈썰매, 스키캠프, 글짓기	(02) 282-1100
서울 자양복지관	요술풍선나라, 도예교실, 컴퓨터	(02) 458-6796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	방학과제 함께하기, 겨울방학 정서 높이기	(02) 989-4214
과천종합사회복지관	테마여행, 꼬마요리특강, 예비중학교실	(02) 507-6319
부천 덕유사회복지관	단소, 레크리에이션, 성교육, 열린교육	(032) 325-2161
부산 개금사회복지관	학습지도, 컴퓨터, 미술	(051) 893-5034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논라글짓기, 만화, 종이접기, 창작교실(미술), 도예, 예비중학교	(051) 363-2063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미술, 글짓기, 컴퓨터, 학습지도	(051) 265-9471

박물관견학·도예·단소등 프로다양 비용 저렴…실직가정 자녀는 무료

IMF관리체제서의 특활교육, 불교 복지시설에서 해결하자. 겨울방학을 맞아 불교 복지시설들이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정서함양과 놀이를 병행, 건전한 과외교실 역할을 하게 될 겨울방학 프로그램들은 과외비도 절약(무료 또는 시중학원의 50~70%)하면서 다양한 특기와 취미를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강릉·명륜·냉림·덕유종합사회복지관 등 10여개의 복지관들은 실직가정 자녀를 돕기 위한 방과후 학교를 방학중에도 계속 운영, 실직가정 부모들의 경제난을 덜어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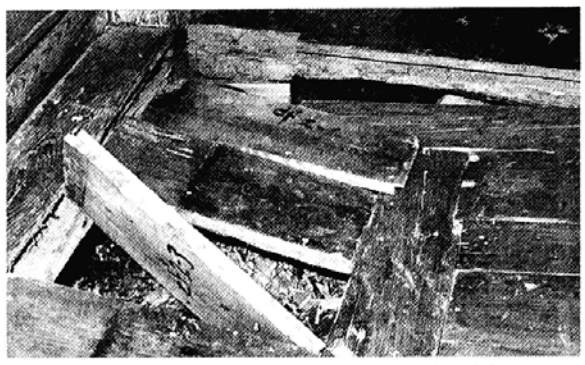
교계 복지관의 방학특강 수강료는 대부분 1만5천원~2만원대로 저렴한 편. 구로종합복지관 등 일부 복지관들은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활용, 5천원 정도의 재료비만 받고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다.

강의내용 역시 수강료에 비해 다양하고 충실하다. 피아노, 미술 등의 일반적인 특활교육은 물론 만화그리기, 도예교실, 사물놀이, 영화감상, 박물관기행, 바둑, 신문활용제작, 과학교실, 스키, 모형항공기만들기 등 학생들의 흥미유발 및 자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강좌도 개설된다. 자기표현교실, 독서탐험, 동화구연, 장애아동 그림교실, 문화탐방 등이 그것. 이밖에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예절교실 등은 자녀들이 예절바르고 이타적인 인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시설명	프로그램	문의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과학교실, 종이접기, 만화, 피아노, 컴퓨터, 미술, 학습	(051) 264-9033
경산 백천사회복지관	미술, 글짓기, 동화구연, 종이접기, 속셈	(053) 811-1347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즐거운 방학생활	(0371) 762-8131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중학예비교실	(0391) 653-6375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신문활용교육, 과학교실, 문화탐방	(0391) 31-8761
공주 금강사회복지관	그림일기, 색종이접기, 독서·논술지도, 글쓰기, 한자, 미술, 아동사회정서향상	(0416) 856-6110
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논술·글짓기교실, 컴퓨터, 동화구연, 예비중학교실, 도예교실, 사물놀이, 예절	(042) 633-1141
제천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그림교실	(0443) 652-0900
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	강다리교실, 예절교실, 청소년자원봉사단, 자기성장프로그램, 청소년댄스그룹회원	(0551) 31-8017
문경 모전사회복지관	학습지도, 수화교실, 칼라믹스	(0581) 555-0108
포항 학산사회복지관	아름다운 공부방, 명심보감	(0562) 48-6165
상주 냉림사회복지관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꾸러기교실(특활, 문제풀이)	(0582) 32-5677
광주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필트, 아동영화상영, 책이야기그림그리기, 만화주인공에게 편지쓰기	(062) 941-8248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비디오영상교실, 속셈, 학습교실, 영어, 피아노, 합기도, 서예, 한문	(062) 266-3853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	학습지도	(0662) 652-4242



◇귀신사 대적광전 마루. 나무가 썩어 내려앉고 있다.

썩고 금가고 꺼지고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붕괴위기

보물 826호로 지정돼 있는 전북 김제시 귀신사(歸信寺) 대적광전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

17세기 후반(1633년)에 중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적광전은 중층건물을 단층으로 고쳐 지은 것으로 한국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대적광전은 현재 내외부의 구조물이 썩거나 금이 가 있으며 건물 자체도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내부 마루는 불단 뒤와 좌측의 일부분이 꺼져 있으며, 다른 곳도 언제 내려 앉을지 모를 정도로 삐거덕 거리고 있다. 벽체와 분리된 우측의 중간기둥은 길이 1.5m, 너비 2㎝가량의 틈이 벌어져 햇빛이 들어오고 있으며, 건물의 벽면도 곳곳이 갈라져 있다. 또 몇해전 보수했다는 공포와 천장을 가로지르는 보 등은 원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금이 가 있어 보수가 조악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귀신사 주지 범현스님은 "김제시에 사진자료와 함께 대적광전의 보수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마루보수도 급하지만 전면적인 해체복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대적광전 마루 보수비로 2천만원 정도의 국비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찰에서 보낸 사진만으로 예산신청을 하는등 허술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담당관청인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아무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보수는커녕 진단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최치원이 〈법장화상전(法藏和尙傳)〉을 쓴 곳인 귀신사는 전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3층석탑(62호), 부도(63호), 석수(64호)를 비롯해 배례석, 탑재, 기단석, 주춧돌 등 통일신라에서 고려에 이어지는 유구들이 산재해 있어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뉴스 & 뉴스

대원불교대 발전위 구성

운영악화로 내홍을 겪었던 대원회(이사장 박운흔) 대원불교대학이 발전위원회를 구성, 폐교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박운흔이사장(대구대 총장)은 11월 30일 경북 경산 대구대총장실에서 대원법사단 권순 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사장의 권한을 김용직 이사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은 김이사와 법사단은 1일 "대원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확보 및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자민련불자회 송년법회

자유민주연합불자회(회장 박철언 부총재)는 11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98년 자민련불자회 송년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는 초청법사로, 월운스님(봉선사 조실)이 법문할 계획이다. 자민련불자회 송년대법회에는 회원의원과 정·관계 내외인사 3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02)701-3355 최성식부장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불교기자상 대상에 본사 임연태차장

제2회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에 현대불교신문 취재1부 임연태차장이 선정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에 '98 영상의 해 특집기획 '백두대간 숨결을 듣는다'를 연재한 본사 임연태차장을, 기획보도부문상에는 '사찰의 미, 한국의 미'를 쓴 조병활기자(불교신문), 사진보도부문상에는 '주간 매거진-사진으로 보는 불교건축'의 홍은미기자(주간불교)를 각각 선정했다. 또 공로상은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이 수상하게 됐다. 취재보도부문상에는 해당자가 없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6시30분 동산반야회 2층 동산교육관에서 갖는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조계종복지재단 '우리가 남인가'

실직가정 겨울나기 지원 결식아동들에 무료급식

15일부터 내년 6월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겨울철 실직가정 및 결식아동 돕기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1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실직가정 겨울나기 지원사업인 '우리가 남인가'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2차 지원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1억2천만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실시되는 것.

복지재단은 서울시내 구로, 본동, 자양,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강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3개월간 가족수당 지급(가구당 13만원) △부부사랑 가꾸기 프로그램(대화기술, 가정의 중요성 교육) △세상읽기 특강(미래의 직업, IMF극복전망, 역경을 극복하자) △구직활동 지원 및 직업알선·부부캠프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또 12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 가정의 해체, 가장의 실직 등으로 제때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산하 복지관을 통해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가 사랑의친구들로부터 3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게 된 것.

각 복지관에는 20~60명분의 부식비(1인당 1천2백원)가 50일간 지원되며, 식비 또는 쿠폰 전달의 방식은 제외된다.

(02)723-5101 김재경 기자

범종교 북한지원 협의기구 구성키로

'범종교단체 북한지원 협의기구(가칭)'가 구성된다.

11월27일 문화관광부의 '98남북 종교교류포럼에 참석한 법타스님, 지성스님을 비롯 이재성 성공회대 총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등 각 종교계 인사들은 남북종교인의 교류와 협력, 정보교환 등을 위한 '범종교단체 북한지원 협의기구(가칭)'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에는 △불교=법타스님, 지현정사 △원불교=박청수·이성원교무 △천주교=오태순·이강렬신부와 천도교 유교대표 등 각 종교대표 2명씩 위촉됐다. 도필선 기자

40대남자 사찰상대 거액 시주미끼 '사기'

사찰 상대의 신종사기가 등장해 스님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천 모사찰의 한 스님의 제보에 따르면, 프랑스교포이며 우리 돈으로 1백억원대의 재산이 프랑스에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자가 암으로 투병중인 어머니의 퇴원비와 수의 값이 필요하다며 1천5백만원을 급히 빌려주면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뜻에 따라 거액을 시주하겠다며 스님들을 꾀인다.

이 남자는 178㎝의 호리호리한 체격에 짧고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한 미남형이며, 경상도 말씨를 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양지마을 수탁 최종계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일 양지마을 운영법인인 천성원과 양지마을 등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사회복지재단은 천성원에서 운영해 온 부랑인 수용시설인 '양지마을'과 장애인요양원을 '마곡사지부를 통해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천성원에서 운영해 온 정신병동인 송현원은 기독교계가 위탁운영하게 됐다.

불교계의 이번 양지마을 수탁건은 기독교계와의 치열한 위탁경쟁에서 얻어낸 것으로 종단내부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일궈낸 수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 마곡사측도 계약조건이 불만족스럽지만 조계사 사태로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양지마을 위탁계약을 성사시켰다는 후문이다.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이상한 공권력

임 연 태 〈취재 1부 차장〉

30일 총무원 청사를 두고 벌어진 정화회의와 승려대회측의 공방은 치열의 도를 넘어 인명살상의 위험까지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유리조각이 표창처럼 날고 탄산음료수병이 엄청난 중력을 싣고 쏟아져 내렸다. 새총으로 쏘아대는 유리구슬이나 음료수병 파편에 눈을 맞을 경우 실명이 분명했다.

그 뿐인가. 석유와 신나를 통채 쏟아 붓고 화염병을 던지는 곳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장을 보는 순간에도 기가 막혔고 나중에 그일을 생각만 해도 살이 떨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당사자가 다름아닌 스님들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그보다 더 말문을 막는 것이 있다. 그토록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적지않은 경찰이 있었다는 것이다. 싸움을 도우려는 의도인지 대형 서치라이트를 비춰주고 소방차를 대기 시켜 불이 붙을 때마다 얼른 진화해 주는 친절(?)도 베풀었다.

각 기관의 정보담당자들이 수시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있었으며 종로경찰서장은 아예 승용차 본넷트 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상황을 보고 받고 또 보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님들의 싸움을 한편의 무술영화를 감상하듯 즐겼다는 말인가. 아니면 30여명의 부상자로는 공권력 개입의 명분에 모자라 사망자가 날때까지 기다렸던 것인가. 실로 이상한 공권력의 여유가 아닐 수 없었다. 대통령까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에 공권력을 투입하되 엄정중립을 지키라"고 했다니 그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의 한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일차적 의무가 분명할 것인데 30일 조계사에서는 예외였다. 공격을 하는측도 막는측도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종교내부의 일이라고 해서 그 현장이 보호될 수는 없다. 종교를 존중 할수록 그런 싸움은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다.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공권력의 태도는 분명한 직무유기였다.

(ytlim@buddhapia.com)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공 고

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에서는 전국에 계시는 전 종도, 주지스님 및 사승 법사님께 알립니다. 본 종에서는 종헌 제3장 종법 제1호 승려법 제 18조 종법 제2호 신도법에 의거 소지하고 계신 승려증 및 법사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분들은 해당교구 종무원 및 총무원에 금년 12월 31일까지 필히 재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경과후 누락되면 재적의 불이익이 있으니 한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1998)년 11월 27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신고처	총무원 (02)294-9468~9 FAX. 395-9468

서울교구 (02)523-2566 FAX. 584-3905	인천교구 (032)885-0677 FAX. 888-0677
경기북부 (0351)876-6123	경기남부 (0343)73-5015 FAX. 73-5015
강원교구 (0361)241-2075	충북교구 (0431)50-5806
충남교구 (0458)37-1206 FAX. 37-5746	대전교구 (042)282-0731
경북교구 (0572)33-1138	대구교구 (053)653-8583,7 FAX. 653-8583
경남교구 (0556)72-1097	부산교구 (051)312-3777. 322-5918
전북교구 (0652)253-3188, 73-0303	전남교구 (062)261-0108
제주교구 (064)94-6861, 3088	울산교구 (0522)68-5565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